

담양군, 전 군민 대상 '지역인재뱅크' 운영

이주민·비농업인 등 다양한 계층 참여 담양식 주민자치 실현 정책·사회·문화 등 6개 분야 활동가·전문가 군정 참여 유도

담양군이 주민은 물론 이주민과 비농업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담양식 주민자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어 주목된다.

14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지역인재들의 군정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인력관리 시스템인

'지역인재뱅크'를 운영한다.

담양군 지역인재뱅크는 현재 군정에 참여 중인 활동가와 읍·면 이주민 중 지역별, 분야별 은퇴한 전문가 등 지역인재를 파악해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추진한다.

군은 담양군 소관 위원회에 위촉 가능한

인재 명단을 확보, 인재뱅크를 구성해 지역민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활성화 허브로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군정참여 및 각종 위원회에 관심 있는 담양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8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해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모집분야는 정책, 사회·문화, 보건·복지, 환경, 경제, 농업·기술 등 6개 분야로 참여를 원하는 군민은 군청 자치행정과를 방문하거나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

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역량 있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지역인재뱅크 활성화로 담양식 주민 참여형 지방자치가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담양군청 자치행정과(061-380-317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



장성군 관계자가 상무대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전입지원장려금 등 전입신고에 따른 혜택을 설명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 '찾아가는 전입신고 창구' 호응

상무대 교육생 대상 전입지원장려금 등 혜택 안내

장성군의 '찾아가는 전입신고창구' 호응을 얻고 있다.

14일 장성군에 따르면 현행 주민등록 관련법 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소를 옮긴 사람은 14일 이내 관할지역에 변경된 주소를 신고해야 하지만 이 사실을 잘 모르거나 여건상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워 전입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군은 '찾아가는 전입신고창구'를 도입, 상무대 교육생을 대상으로 전입신고의 정당성과 전입지원장려금 등 전입혜택을 안내하고 전입신고를 접수 받고 있다.

군은 또 접수된 전입신고서는 신분증과 함께 소관 읍·면에 전달하고 읍·면은 신고

수리된 신분증을 교육생에게 되돌려주는 윈윈형 행정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상무대와 업무협조를 통해 교육생 입교시기에 맞춰 부대를 방문하고 찾아가는 전입신고창구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장병들의 평일 외출 허용에 따라 지역 음식점과 마트, PC방 등 지역 업소의 이용이 늘 것으로 보고 해당 업소의 소할인혜택을 홍보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장성군,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시작됐다

이달부터 조기 시행... 37억원 투입 1316명에 제공

장성군이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올해 일자리 지원 사업을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장성군은 지난 8일부터 남면·북이면·북하면을 시작으로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을 개시했다

고 밝혔다.

노인 일자리사업 조기 추진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동절기 소득 공백 완화를 위해 이뤄졌다.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총 37억2000여 만원을 투입해 어르신 131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지난해보다 예산을 8억4000여만원 증

액하고, 일자리는 275개를 늘렸다.

이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3개 유형, 11개 단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익형 참여자는 월 30시간 참여로 월 27만원의 활동비를 지원 받고, 사회서비스형은 월 60~66시간 근무를 통해 월 54만~59만원의 활동비를 지급 받는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화순 한천면 3개마을 0.49km² 폐광지역진흥지구 추가 고시

지역 기반시설 확충 속도

화순군은 지난 13일자로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천면 모산1·2리와 금전리 등 3개 마을(조감도) 0.49km²를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한천면 3개 마을이 폐광지역진흥지구로 포함되면서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화순군은 진흥지구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농업 경쟁력 강화, 농가소득 증대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진흥지구 추가 지정은 화순군이 1년여 동안 전남도와 관계부처 간 협의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이에 앞서 '전남도 지역개발 10개년 계획' 변경과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고시 절차를 거쳤다.

그동안 한천면 3개 마을은 폐광지역진



흥지구로 포함되지 않아 생활 기반시설이나 각종 소득증대사업 지원 혜택에서 제외됐다.

화순군 관계자는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에 따라 한천면 모산리, 금전리에 부족한 기반시설과 주민 소득증대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농주농협이 모산리에 추진하고 있는 벼 건조저장시설(DSC)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화순군, 새끼우렁이 무상 공급 확대

올 4억8000만원 들여 일반 벼 재배농가도

화순군이 친환경 농가뿐만 아니라 일반 벼 재배 농가에도 새끼우렁이를 무상 공급한다.

새끼우렁이는 왕우렁이보다 제조효과가 높고 벼를 먹는 피해도 적다. 모내기 후 새끼우렁이를 풀어 놓으면 논을 평탄하게 만들고, 논바닥이 물 밖으로 노출되는 것을 막는다.

특히 제조율이 99% 이상으로 제조제 없이 벼를 키울 수 있어 친환경 농업에 효과가 크다.

군은 일반 농가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

해 올해 예산으로 4억8000여만 원을 편성했다.

벼 재배면적 1ha를 기준으로 친환경 농가에는 12kg, 일반 농가에는 11kg의 새끼우렁이를 공급할 예정이다.

희망 농가는 다음 달 29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마감 후 읍·면별 선정과 리위원회에서 공급업체를 자체 선정하고, 모내기 직후인 5~6월에 일괄 공급할 계획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화순군, 농업용 저수지 117곳 안전실태 점검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화순군은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지역 농업용 저수지 117개소의 안전 실태를 일제히 점검한다.

화순군은 제당과 여방수로 상태를 살피고 북·사통 균열 여부, 저수율 등을 확인한다. 특히, 해빙기에 자주 발생하는 제당의 누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매년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국가 안전대진단과 함께 실시한다.

점검 결과 시설 하자가 가벼우면 즉

시 군 자체 사업비로 보수한다.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면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국·도비 지원을 요청해 복구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다"며 "철저한 점검과 사후 조치로 군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광주일보 뉴스 NAVER 공식 포스트에서 보세요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